

종교를 초월한 민족문화의 精華

‘책의 날’ 제정기념 고려대장경 학술발표회

이번 세미나에서는
**고려대장경 조성에 미친
 최씨 무인정권의 영향력과
 禪敎兩宗에 걸친
 당시 불교의 사회사상적
 배경에 관해 색다른
 견해들이 나왔다.**
 그러나, 고려대장경은
 지금까지 전해지는
 세계의 어떤 대장경보다도
 뛰어난, 시대와 사상을
 뛰어넘는 민족문화의
 금자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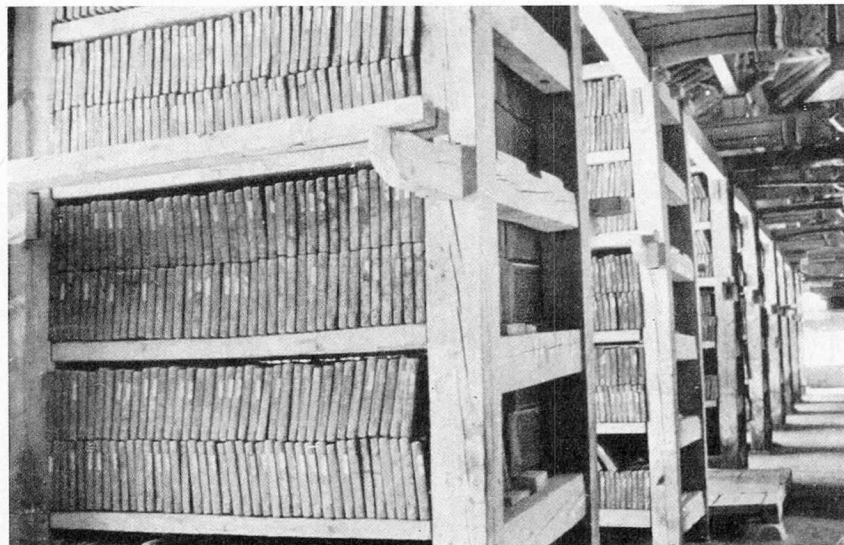
고려대장경 완성 736주년을 맞아 제1회 ‘책의 날’로 선포된 지난 10월11일 하오 2시, 서울 출판문화회관에서 ‘책의 날 제정기념 고려대장경 학술발표회’가 해인사 고려대장경연구회의 주최로 열렸다.

전문학자들과 불교신도, 그리고 관심있는 일반인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학술발표회는 이기영 교수 등 4명의 발표자가 논문을 발표하고, 참석자들이 질의토론하는 순서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날 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동국대 李箕永 교수는 「高麗大藏經의 문화사적 意義」를 통해 대장경의 참뜻을 살피고, 많은 대장경 가운데 고려대장경만이 갖는 독특한 문화사적 의의를 밝혔다. 그에 따르면 대장경이란 곧 ‘세계의 광주리’란 뜻을 가진 산스크리트어의 한문번역인 ‘三藏’의 집대성을 이르는 것으로, 여기서 말하는 삼장이란 부처님이 하신 말씀의 근간을 적은 ‘經’, 불제자들이 지켜야 할 윤리와 규범을 적은 ‘律’, 그리고 경과 율에 대해 학자들이 논의한 ‘論’을 아울러 통칭하는 것이라고 한다. 또, 그 문화사적 의의로는, 고려대장경은 현존하는 最古의 것으로서 오늘날 전해지는 세계 각지의 어떤 종류의 대장경보다도 그 목록의 엄선주의에서나 정확한 교정 등에서 단연 유일의 권위를 자랑하는 것이라는 데 있다고 말했다.

최씨 무인정권과 대장경의 관계

「고려再雕大藏經의 書誌史學的視角」을 발표한 성균관대 千惠鳳 교수는 재조대장경, 곧 현존하는 해인사 고려대장경의 서지사학적 의의를 대장경 본문의 교정 및 편성, 그리고 판본상의 특징으로 나누어 초조대장경과의 비교 분석으로 밝혀내고 있다. 가령, 초조본에는 아예 표시되지도 않은 刊記가, 재조본에서는 중국의 연호 대신 ‘戊申歲’등 刊支紀年을 사용하고 있음을 들어 당시 몽고침략에 맞서 싸운 고려의 국가적 자존심의 일단을 밝혀낸 점 등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라는 것.



해인사 판전에 봉안되어 있는 고려대장경

「高宗官版大藏經의 造成過程과 思想性」을 발표한 경북대 許興植 교수는 특히 고려대장경 조성에 미친 최씨무인정권의 영향력과 禪敎 양종에 걸친 당시 고려불교의 종교적 배경에 대해 사회사상적 고찰을 가함으로써 색다른 견해를 내놓고 있다.

허교수에 따르면 대장경은 불교 경전이므로 선종보다는 교종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속성이 있어, 武臣亂 이전에 조성된 초조대장경만 해도 왕실과 문벌관료에 결탁되어 득세하던 교종의 일파인 화엄종과 유가종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러던 것이 무신란 이후 지방도호 및 무신들과 연결된 조계종이 득세하고 이에 상대적으로 교종의 세력은 약화되자, 강화천도

시기의 국난기에 국민의 힘을 한데 결집할 필요를 느끼고 있던 최씨무인정권은 그동안 소외돼 왔던 교종에 대해서도 후원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당시 최씨정권은 조계종과 가장 밀착하였지만 경전은 종파적 속성상 교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 밖에 없어, 재조대장경의 조성은 조계종 사찰인 선원사의 행정 및 경제적 주도 아래 교종의 이론적 참여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허교수의 주장이다. 이는 고려대장경 조조의 실무책임자로 짐작되는 守其가 화엄종의 화승인 점에서도 증명되는데, 초조대장경이 교종의 하나인 유가종의 현화사에 의해, 그리고 의천의 속장경 역시 교종의 하나

塔出版社

國語學 · 言語學 · 哲學 良書!!

서울 · 종로구 신영동 183-1
 ☎ 353-9999 / 353-9990~7

國語史 概說 (개정판)	李基文 著 값 4,300 원	十五世紀 國語의 活用 語幹에 대한 形態論的研究	안병희 著 값 1,500 원	언어학개론	남기심·이정민·이홍배 著 값 5,500 원
周時經研究 — 增補版 —	金敏洙 著 값 7,000 원	李朝時代의 譯學政策과 譯學者	강신항 著 값 2,000 원	언어 — 그 이론과 응용 —	김진우 著 값 5,500 원
표준 국어문법론	남기심 · 고영근 著 값 7,500 원	國語文法의 時制問題에 關한 研究	南基心 著 값 2,500 원	生成音韻論	田相範 著 값 5,500 원
표준 중세국어문법론	고영근 著 값 5,500 원	文學과 言語	김완진 著 값 2,000 원	話用論研究	張爽鎭 著 값 5,000 원
國語音韻史研究	李基文 著 값 2,500 원	音韻現象에 있어서의 制約	이병근 著 값 2,800 원	意味論	南星祐 譯 값 6,000 원
慶尚道方言聲調研究	정연찬 著 값 2,500 원	현대 한국어 동사구문 연구	홍재성 著 값 3,500 원	意味論의 原理	南星祐 譯 값 5,500 원
前期近代國語 音韻論研究	宋敏 著 값 2,500 원	한국어 셈술화 구문의 통사론	김영희 著 값 3,000 원	英美詩의 分析과 理解	朴世根 著 값 7,000 원
國語語順의 研究	蔡琬 著 값 2,500 원	現代國語의 樣態範疇研究	張京姬 著 값 2,500 원	現象學과 分析哲學	孫鳳鎬 譯 값 2,500 원
전라남도의 언어지리	이기갑 著 값 4,500 원	韓國語音韻史研究	都守熙 著 값 5,000 원	플라토 哲學 研究	李載燮 著 값 3,000 원

인 화업종의 흥왕사에 의해 그 조성이 주도되었던 사실과도 상통한다.

인쇄 등 실제 활동은 적어

한편, 허교수는 대장경 조성의 동기에 대해서도 李奎報의 「君臣祈告文」에 드러나는 대로 대개 몽고침략에 대응한 호국외지의 발현으로 보는 일반적인 견해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즉, 대장도감이 설치되어 판경사업을 주도한 선원사는 최우가 창건한 절로 최우 사후 그 아들 최항이 최우의 眞殿으로 삼아 국왕에 대한 예우와 동등한 의식을 거행했다는 점, 그리고 分司都監이 설치돼 경판사업을 지원했던 南海와 晋陽일대가 최씨 일족의 식읍이었던 점을 들고 있다. 그에 의하면, 당시 대장경을 조성한 실질적 관할자와 경제적 후원자, 그리고 사찰들이 모두 최씨무인정권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음을 미루어 대장경 조성의 동기는 몽고침략에 대응한 호국외지 외에 최씨집권세력의 미화와 그 기원에도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허교수는, 고려대장경이 조성되던 다음, 그 이후에는 그것이 별다른 활용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에 대해서도 색다른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즉, 고려대장경의 조성이 비록 국가적 차원의 호국을 내세워 착수되었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최씨일족의 후원으로, 그들의 願利에서, 그들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추측이다. 한편으로, 무신정권 이후의 불교계가

조계종을 위시한 선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던 마당에 정작 고려대장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正版의 내용은 교종 일색으로, 그만큼 현실성을 결여한 판본들이었다는 데서 활발한 印出이 행해지지 못한 사정을 찾고 있다. 말하자면, 이론보다는 실천, 논리성보다는 신비성, 사변성보다는 행동성, 교종보다는 선종이 중심이 된 당시 불교계가 가까이 하기에는 고려대장경이 너무 거리가 있었다는 것이다.

대장도감과 분사도감의 기능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朴相國씨(문화재관리국)는 「海印寺 大藏經版에 대한 재고찰」에서 대장경의 명칭과 각판 시기, 대장도감과 분사도감의 기능에 대해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대장도감과 분사도감의 기능에 대해서는, 과연 강화의 대장도감에서 대부분의 경판을 조성했느냐는 의문 아래, 아마도 남해·진양의 분사도감은 애초에는 대장도감의 보조기관으로 설치되어 판목 수집이나 鍊版작업을 담당하다가 차차 각판작업까지 맡아하지 않았겠느냐는 추측을 하고 있다.

또, 대장도감에는 대부분 간기에 간지기년 및 「高麗國」이라는 국명과 함께 국왕의 명을 받들어 판경했다는 「奉勅雕造」라는 기록이 刻字되어 있는 것에 반해 분사도감에는 그냥 「雕造」라든지 「開板」이라고만 되어 있어 대장도감과 분사도감의 구별이 판각경비가 국가적 차원에서 조달된 것과 개인의 시주로 조달된 데에 있지 않은가 하는 추측이다.

책주변의 이야기

아직 늦지 않았다

괴테는 80세에 「파우스트」를,
테니슨은 80세에
「장벽을 넘어」를 썼고,
베르디는 85세에
「아베마리아」를 작곡했다.

의사와 베스트셀러

서머셋 모음 의사로 출발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사람. 국내에도 여러 작품이 소개된 A.J. 크로닌, 벤저민 스포크드 의사로서 베스트셀러를 쓴 사람이다. 의사 로제트(R.M. Roget)도 유명한 사전 *The Roget's Thesaurus*를 74세에 완성했는데, 이 책은 저자가 90세가 되었을 때 28편이나 찍었다.

희곡을 많이 쓴 작가

세계에서 희곡을 가장 많이 쓴 작가는 로페드 베가(1562-1635)일 것이다. 그는 2200편 이상의 희곡을 썼는데, 그중 500편이 남아 있다 「꿈의 해석」

프로이드의 저서 중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꿈의 해석」은 1899년에 초판이 나와, 겨우 209달러가 저자에게 돌아간 책이다. 초판 600부가 다 팔리기까지는 8년이나 걸렸지만, 오늘날에는 여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다.

「로빈슨 크루소」

「로빈슨 크루소의 표류기」를 쓴 다니엘 디포는 「영국 경제의 구상」이라는 책도 쓴 신문사 경제부 기자였다. 「로빈슨 크루소...」는 단순한 모험 이야기라고 할 수만은 없다. 마르크스와 막스 베버는 이 책을 인용하여 크루소가 孤島에서 혼자 생활을 영위했던 경제방법을 높이 평가했으며, 영국 중류가정의 필독서로서 초기 자본주의 발달에 큰 영향을 끼친 책이었다. 로빈슨 크루소가 무인고도에 머문 기간은 28년 2개월 19일이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칸트는 그의 잘 알려진 철학책을 74세에 썼으며, 괴테는 80세에 「파우스트」를, 테니슨 역시 80세에 「장벽을 넘어」를 썼다. 베르디는 85세에 「아베마리아」를 작곡했고, 미켈란젤로는 87세에 완성한 작품이 있으며, 티티안은 「레판토의 전쟁」을 무려 98세에 그렸다.

원고에서 제작까지

미국 오하이오의 칠리코테에 살았던 닥터 헌터 박사는 1923년 140페이지 책을 펴냈는데, 자신이 쓴 글을 자기 손으로 만든 종이(리넨과 무명으로 제작)를 사용하여 자신이 조판하고 스스로 디자인·제본까지 도맡아 책을 만들었다고.

“?!.”

빅톨 위고는 편집자에게 자기 원고 「레미제라블」에 대한 의견을 묻는 편지에 단지 “?” 하나만을 써서 보냈는데, 이에 대해 그 출판인은 “!” 하나만으로 답장을 보내왔다. 이 편지는 지금 미국의 사이먼 앤드 슈스터 출판사가 소유하고 있다. 「레미제라블」에는 불어로 쓰여진 가장 긴 문장이 들어있는데 823단어가 마침표도 없이 이어져 있다.

오마르 카이얌

유클리드 기하학의 다섯번째 공리와 관련된 특수 4변형에 대한 바른 견해를 제일 처음 편 사람은 오마르 카이얌이다. 그는 위대한 수학자이며 철학자로 기억되어야 마땅한데도, 단지 사람들에게는 4행시 「루바이야트(Rubaiyat)」를 쓴 위대한 시인으로서만 알려져 있을 뿐이다.

귀중한 부록

헝가리 수학자 파노키스 볼리야이(F. Bolyai)는 1831년 수학에 관한 책을 한권 펴냈는데, 그 부록으로 20살된 그의 아들 야노스(Janos)가 쓴 26페이지의 글을 실었다. 그런데 이 부록은 非유클리드 기하학의 기초가 되는 내용으로, 결국 이 책에서 더할 나위 없는 귀중한 수학적 기록은 부록에 있는 셈이었다.

— 김호근·프리 에디터

研究室에서, 學校에서, 現場에서 最大の 寶庫 //

電子通信時代に 부응한 最高, 最大の 良書出版 //

- | | | | | | | | | | | | | | | |
|------------|------------|------------|------------|--------------|--------|------------|------------|--------|-----|------------|------------|-----------|----------|---------------|
| 15 | 14 | 13 | 12 | 11 | 10 | 9 | 8 | 7 | 6 | 5 | 4 | 2 | 3 | 1 |
| 시스템應用 | 計測制御 | 画像通信·端末機器 | 無線傳送·데이터通信 | 傳送理論·線路·有線傳送 | 通信網·交換 | 音·画像·人間 | 光·電波 II | 光·電波 I | 컴퓨터 | 材料·部品 | 디바이스·回路 II | 디바이스·回路 I | 情報·시스템理論 | 基本測定 및 回路制御理論 |
| 김수보
김명기 | 김수중
이건일 | 이현재
가정희 | 이영규 | 우소훈 | 오영환 | 이충용
강민호 | 송재국
조성준 | 이태원 | 김보영 | 이정환
장인수 | 김종악
김영용 | 관
김영준 | 우관준 | 우관준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 6가 257
전화 923-1782, 941-6312

圖書出版 技多利

電子通信工學大系

(全15卷)